

전남도 의사회장 사상 첫 非 전남대 출신 탄생했다

가톨릭대 출신 박인태 회장



의사회장, 전남의사회 감사, 전남의사회 의협 파견 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전남도의사회 회장에 최초로 비(非) 전남대 출신이 당선됐다. 15일 전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마감된 제36대 회장 선거 개표결과, 가톨릭 의대 출신 박인태(64·사진)이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총 유권자 1천170명 중 675명(투표율 57%)이 참가한 이번 선거에서 박인태 회장은 409표(60.6%)를 얻어 247표(36.6%)를 획득한 상대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 의예를 안았다.

박 당선자는 여수 출생으로 가톨릭의대를 거쳐 중앙대에서 의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뒤 여수시

박인태 회장은 전남대 출신이 아닌 타 지역 대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대와 조선대 출신 의사들의 고른 지지를 받아 회장에 당선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당선자는 "32년간 여수에서 의사생활을 해온 공로와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며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서 열린 '누드 크로키 시연회'

15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빅마트 내에 위치한 시안갤러리에서 열린 '누드 크로키 시연회'에 참가한 지역작가들과 미술 애호가들이 전문 누드 모델의 절묘한 곡선과 몸짓을 화폭에 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물...물...물... 목타는 섬 주민

전남 섬마을 30곳 주민 3,271명 고통 급수선 운항 못해 식수 공급도 어려워

공단은 우선 16일 선박 3척을 통해 서울시와 수원원공사가 지원한 500㎞ 떨어진 섬마을에 물을 공급하는데 이어서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후원도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 모든 유치원 종일반 운영

교사 271명 총원

전남도내 모든 유치원이 신학기부터 '맞춤형 종일반'을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은 15일 "올 신학기부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모든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치원 정규교사 21명과 시간강사 50명, '3세대 하모니' 인력 200명 등 271명을 신규 총원, 배치했다.

도 교육청은 "기존 배치된 정규교사와 시간강사, 학급업무 보조원 등을 고려하면 유치원당 최소 2~3명의 인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0~50대 여성의 육아경험을 활용하고 취업기회 제공, 일선 유치

원 인력부족 해소 등을 위한 이른바 '3세대 하모니 인력'은 종일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하루 4시간씩 동화책 읽어주기, 생활습관 지도, 급식 및 간식 준비, 교실 정돈 등을 하게 되며 2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인건비 14억원을 추가로 확보, 신학기부터 도내 466개 전 유치원에서 원생과 학부모의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 운영하는 종일반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의 유치원은 단설(單設) 유치원 10곳을 비롯한 병설(並設) 유치원 456곳 등 모두 46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원생은 1만9천500여명에 이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완도군과 고흥군 등 전남지역 해상 국립공원의 섬마을 주민들이 가뭄 장기에 따른 물 부족으로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다도해국립공원 내 섬마을 30곳의 주민 3천271명 이 물 부족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보내고 있다.

이들 마을 중 급수선박을 통해 제한적 급수가 이뤄지는 곳은 13개 마을 뿐이며, 나머지는 급수선 운항이 어려워 외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고흥군 사양마을(186명)과 처원 10곳을 비롯한 병설(並設) 유치원 456곳 등 모두 46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원생은 1만9천500여명에 이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섬지역의 경우 육지보다 지하수 수위가 더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가뭄이 지속될 이면 가뭄에는 우물이 있어도 활용할 수 없어 물공급 여건이 더욱 열악해졌다.

고흥군 사양마을의 고통열 이장은 "오랜 가뭄으로 생활용수는 물론이고 물조차 마실 수 없다"며 "지하수를 끌어올려 10일에 한 번씩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주민 200여명이 사용할 물을 대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급수선이 닿지 못하는 낙도의 식수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관리용 선박을 동원해 생수를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물부족을 겪고 있는 전국의 외딴 섬마을은 다도해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총 58곳(주민 8천38명)에 이른다.

남구에 따르면 17일 청사 상황실에서 황일봉 남구청장을 비롯한 민정기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추진중심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주민 교통안전 교육서비스를 비롯 운수업체 지도 진단, 교통안전 컨설팅,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 등 9개 항목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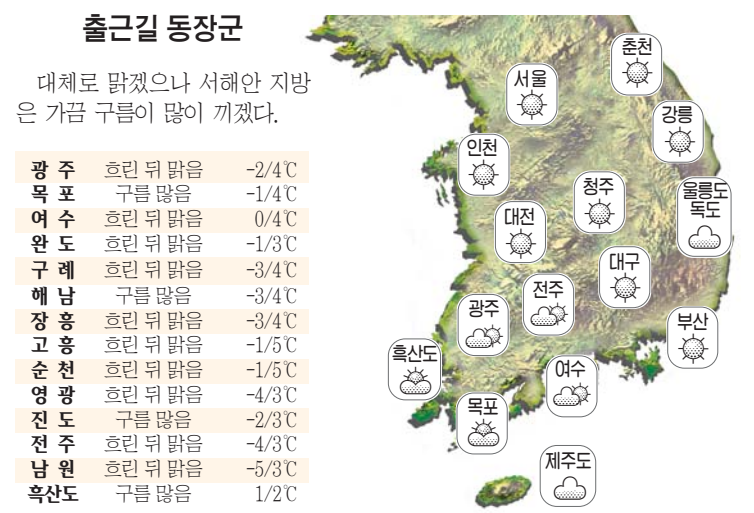
남구·교통안전공단 협약

광주시 남구와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교통안전 선진화에 나선다.

남구에 따르면 17일 청사 상황실에서 황일봉 남구청장을 비롯한 민정기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추진중심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주민 교통안전 교육서비스를 비롯 운수업체 지도 진단, 교통안전 컨설팅,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 등 9개 항목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8분 해질 18시 16분 달돋이 00시 27분 달질 10시 37분



출근길 동장군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광주: 흐린 뒤 맑음 -2/4℃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목포 06:40	11:39
목포: 구름 많음 -1/4℃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00:48	06:54
여수: 흐린 뒤 맑음 0/4℃				12:32	18:53
완도: 흐린 뒤 맑음 -1/3℃					
구례: 흐린 뒤 맑음 -3/4℃					
해남: 구름 많음 -3/4℃					
장흥: 흐린 뒤 맑음 -3/4℃					
고흥: 흐린 뒤 맑음 -1/5℃					
순천: 흐린 뒤 맑음 -1/5℃					
영광: 흐린 뒤 맑음 -4/3℃					
진도: 구름 많음 -2/3℃					
진주: 흐린 뒤 맑음 -4/3℃					
남원: 흐린 뒤 맑음 -5/3℃					
옥산도: 구름 많음 1/2℃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4/5	-2/8	3/9	1/6	-3/7	1/8

막바지 추위...서해안 눈발

광주·전남 영하 4도 주말까지 한파 계속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광주·전남지역에 봄을 시샘하는 막바지 추위가 찾아왔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광주·전남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며, 목포와 영광 등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에 눈발이 약하게 날리겠다"고 15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남보다 다소 떨어진 영하 4도~0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낮에도 차가

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1.0~2.5 m로 비교적 낮게 일겠으며, 15일 오후 2시30분 여수지역에 발표됐던 강풍주의보는 16일 오전에 해제될 전망이다.

17일에도 구름이 조금 끼고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의 기온은 영하 4도~영상 5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목요일인 19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추위는 우수(雨水)인 18일께 다소 누그러졌다가 주말에 계속될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져도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구광남병원) 1062) 227-9940 총장점 (금남병원) 1062) 227-9970

국내에서 2009년 9월 입학보장 받고 떠나는 **리틀차이나 중국명문대학 진학 프로그램!!** www.littlechina.co.kr

• 중국명문대학들이 리틀차이나를 파트너로 선정하였습니다. • STEP과정 1기~7기 수료자 전원 100% 중국 명문대학 합격 보장!

리틀차이나 STEP과정이란?

- STEP과정 (Service Training in Educational Process) 70시간 필수
- 1기~7기 과정은 중국어 교육과정인 학원생을 4년으로 중국 명문 대학 학부 및 석사과정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 STEP과정 1기~7기 수료자 전원 100% 중국 명문대학 합격 보장
- STEP과정 1기~7기 수료자 전원 100% 중국 명문대학 합격 보장

리틀차이나 STEP과정 연계된 중국명문대학 리스트

대학명	STEP과정	연계된 중국명문대학
STEP과정 1기 수료자	STEP과정 2기 수료자	STEP과정 3기 수료자

문의: 리틀차이나 중국명문대학 진학 프로그램 30 (구광남병원) 1062) 227-9940

상업은행 ☎ 062) 233-9582 (구광남병원)